

바야흐로 임금의 시대가 왔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

고용의 시대는 가고 임금의 시대가 왔다! 요즘 임금 관련 토론회에 가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고용은 그 자체로서도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지만, 복지와 관련지어 생각한다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어찌 고용의 시대가 갔다고 할 수 있겠는가? 고용은 여전히 시대의 화두로 남아 있지만, 바야흐로 임금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전후로 근로시간 단축 및 정년연장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여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문제가 추가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노조유무에 따른 임금 문제가 덧붙여진다. 게다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1% 높게 결정하였다. 이 러니 가히 임금의 시대가 왔다고 할만도 하다.

임금에 대한 논의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주요 국가들에서도 활발하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최저임금을 40% 가까이 인상할 것을 제안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독일도 메르켈 총리가 국가 차원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임금이 명목과 실질 모두에서 하락하여 왔으나,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힘입어 2014년 민간기업의 총계 임금인상률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것도 2.19% 만큼이다. 이는 2001년 이후 13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최저임금도 2%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임금인상이 근로자들의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를 통한 저성장 국면 탈출을 고대한다.

중국의 경우, 경제체제 개혁 및 경제발전에 따라 민간기업들의 임금결정이 급속히 시장화되었다. 국유기업들도 시장 지향적인 임금배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한편으로 도농 간, 지역 간, 기업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소득증대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업들을 중심으로 임금 단체협상 제도를 도입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 등이 그러한 정책들 가운데 일부이다.

임금과 고용은 노동시장을 움직이는 두 축이다. 두 변수 모두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 현재의 임금수준에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어 일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임금과 고용이 신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현재의 일자리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이것만으로도 고용조정에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법과 제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비용은 고용안정을 얻기 위한 대가이다.

고용조정이 어려울 경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각 경제주체들의 수많은 사연들은 임금이라는 가격변수를 통해 조정될 수밖에 없다. 임금이 신축적으로 움직인다면 고용조정의 어려움에 따른 비용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마저 경직적이라면 노동시장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우리는 막대한 비용을 대가로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은 경직성을 야기한 경제주체가 아니라 경제적 약자나 취약계층에게로 전가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현실에 가깝다.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체제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임을 직시하고 그러한 경제체제에 저해가 되는 요인들을 찾아 슬기롭게 바로잡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은 10년을 잃어버렸지만 그 대신 이 기간 동안 일 중심의 임금체계를 얻었다. 미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직무 중심

이고 일본식으로 말하자면 역할 중심의 임금체계이다. 중국도 임금의 시장화를 기치로 내걸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 의한 통일된 집중관리체제를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임금결정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생산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임금체계야말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줄 황금열쇠이다. **KLI**